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32
JUNE 19 2020

발간년월 2020년 6월 26일 (통권 제133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총괄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김지영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시아, 북극 자원 및 북극항로 개발 위한 드론 활용에 박차
-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2035 북극 개발 프로그램 준비 완료
- 러, 농업부, 2025년까지 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목표 축소 제안
- 러, 세베로돈스크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새로 건조된 군함 출항 연기
- 600톤의 우라늄, 독일 떠나 러시아 우랄산맥으로 향해

전문가 칼럼

- 중·몽·러 경제회랑과 신북방정책의 연계방안

주요 통계

- 2020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 2020년 3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2020년 3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주요 동향



러시아, 북극의 자원 및 북극항로 개발을 위해 드론 활용에 박차

■ 러시아 방위사업체인 로스텍(Rostec)이 라트비아의 틸트로터(Tiltrotor) 드론 스타트업과 협력해 위험한 북극 작전 수행을 위한 틸트로터 드론을 제작한다고 밝혔음^{a)}

- 틸트로터는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을 하고 수평상태에서는 고정익기처럼 고속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추진방식을 의미함. 여기에 최고 75마일의 속도를 자랑하며 북극의 추운 날씨에도 견딜 수 있는 작고 가벼운 무인 컨버터블 항공기가 생산될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는 다양한 종류의 틸트로터 드론을 연구 중에 있으며 군사 및 방위목적 뿐만 아니라 석유 및 가스회사 등 러시아 산업 부분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음
- 로스텍 관계자는 “러시아는 머지않은 미래에 북극의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것”이라며 자연자원 개발과 북극항로 확보를 위해선 이 분야의 투자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 양측은 향후 카메라와 매핑 레이저가 탑재된 최대 175파운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대형 드론을 개발할 계획임

■ 북극은 유인 항공기에 위험한 환경으로 특별히 개발된 무인시스템 전환이 북극의 산업과 안보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듯^{a)}

- 북극은 승무원의 지원이나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산악지대가 많고 결빙상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해빙, 극한의 기온, 계절적 대낮의 큰 변화 등의 이유로 유인 항공기 운용이 어려운 지역임. 이에 러시아는 유인 항공기를 드론으로 교체함으로써 돈과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음
- 러시아는 앞으로 산업과 군대의 비용을 절약하고 능력을 확장하며 잠재적인 조종사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인 시스템에 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음

그림. 로스텍에서 개발한 드론 ERA-100



이슬기,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참고자료

- a) <https://www.forbes.com/sites/davidaxe/2020/06/21/the-arctic-eats-helicopters-so-russia-is-sending-drones-instead/#67942c6c103e>(검색일: 2020년 6월 25일)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2035 新북극 개발 프로그램 준비 완료

■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가 2035 새로운 북극 개발 프로그램의 준비를 완료함

- 유리 트루트네프(Yuri Trutnev) 러시아 부총리 및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실은 북극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발표함
- 앞서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는 6월말까지 새로운 북극 개발 프로그램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한바 있음
- 극동북극개발부는 “현재 북극 지역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국가 프로그램의 작업을 완료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 북극 프로그램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대체할 것이며, 영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전함

■ 러시아의 북극 전략을 실현시켰던 기존 북극 프로그램은 2017년에 승인되었음

- 2017년 8월 러시아 정부는 새로운 “러시아 북극 지역 사회 경제 개발 프로그램”을 승인했음
- 동 프로그램에는 “북극 핵심 개발 구역 형성 및 구역의 기능 보장”, “러시아 연방 북극 지역 사회 경제 개발 촉진을 위한 조건 창출”, “북극항로 개발 및 항해 보장”, 그리고 “러시아 북극 지역 광물자원 개척을 위한 석유가스 및 산업공학 기술과 장비 개발”의 하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 2035 북극 개발 프로그램은 북극 거대지역의 개발의 주요 방향과 과제를 결정하고,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임

- 2035년 계획의 동 국가 프로그램은 러시아 내각에서 이미 완료된 프로그램인 북극 개발 전략의 기본에 따라 구축될 것임
- 동 전략은 북극 거대지역의 개발의 주요 방향과 과제를 결정하고,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임

■ 새 프로그램에는 기존 북극 전략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역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메커니즘이 포함될 것임

- 새 프로그램에는 기존 북극 전략에는 포함되지 않은 북극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한 보험료와 대출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
- 또한, 하위 프로그램으로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고, 경제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한 북극 광물 자원 센터 개발의 기반이 될 인구밀집구역(정착촌) 개발에 집중할 것임
- 현재 “2035년까지 북극의 러시아 연방 국가 정책의 기본”이 승인되었으며, 내각에서는 거시 지역의 개발 전략에 대한 작업을 완료했음
- 러시아 하원 국가두마는 북극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비과세혜택에 관한 법률 초안을 검토하고 있음

김지영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iyeong11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tass.ru/ekonomika/8697971>(검색일: 2020년 6월 11일)

러시아 농업부, 2025년까지 러시아 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목표 축소 제안

■ 러시아 농업부는 「2025년까지 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의 목표치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함

- 러시아 농업부는 2017년에 발표한 「2025년까지 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서 가축생산지수와 농업생산지수에 대한 지표를 축소하여 재조정할 것을 제안함
- 이러한 지표 수정은 러시아 국내 인구 소득 감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재배 비용, 광물 비료 비용, 기술 장비 및 농업 기계 부품 비용에 대한 다른 국가가 취한 제한 조치가 주원인으로 작용함
- 이에 따라 가축생산지수는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15.8%에서 10.8%로 감축하며, 전체 농업생산지수는 기존의 15.1%에서 13.9%로 줄일 것을 제안함
- 농업부는 또한 코로나-19의 대유행의 결과로 관련 업계의 투자 활동이 감소했으며, 일부 투자 프로젝트는 건설, 현대화, 재건, 기술 재설비를 위한 이행 기간 연장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지난 몇 년간 농업은 러시아 경제의 원동력이었으며, 정부는 농산물 수출 증가에 상당히 의존해왔음

- 러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불리한 기후 조건과 코로나-19의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현지 생산 작업은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0년 총 곡물 생산량은 밀을 포함하여 1,250만 톤에 이를 수 있으며, 최대 7,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2020/21시즌에 필요한 양의 이월량을 유지하면서 곡물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옥사나 룿(Oksana Lut) 농업부 차관은, 최근 몇 년간 농업은 러시아 경제의 원동력이었으며 곡물, 채소, 가축 및 가금류 생산에서 모든 주요 분야에서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또한 국내 농업은 코로나-19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작년 동기간 대비 3%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음
- 한편,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수입대체산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적인 식량 부족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며, 농업부의 농산물 수출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함

-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해 러시아 소비자가 가격이 높은 채소류 대신 저장성이 용이한 곡물류를 구입하며, 쇠고기를 싼 닭고기로 대체하는 등의 소비 형태의 변화도 농업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김현진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hyunjink24@gmail.com)

참고자료

- a) http://www.finmarket.ru/news/5261635?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검색일: 2020년 6월 22일)
- b) https://yandex.ru/turbo/s/ng.ru/economics/2020-06-21/1_7890_agriculture.html?d=1&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검색일: 2020년 6월 22일)

러 세베로드빈스크(Severodvinsk)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새로 건조된 군함 출항 연기

■ 아르한겔스크(Arkhangelsk) 지방정부 대변인은 방위전략산업체를 포함해 세베로드빈스크 시내에 약 1,2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도시를 폐쇄한다고 밝힘¹⁾

- 아르한겔스크 지역 중 세베로드빈스크는 타 도시 대비 확진비율이 2.6배 높아 확진자가 가장 많은 도시임
- 확진자의 75%는 방위전략산업체인 ‘세브마쉬(Sevmash)’, ‘즈베즈도치카(Zvedochka)’에서 발생함
- 6월 6일부터 세베로드빈스크는 폐쇄되었으며, 통근자, 병원방문자, 오네즈스키 지역으로 가는 특수기관 종사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함
- 그 외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거주자들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장인 ‘세브마쉬(Sevmash)’, ‘즈베즈도치카(Zvedochka)’, ‘북극생산협회 Arctica(Northern Production Association Arctic)’, ‘세베르니 레이드(Severny Reid)’의 근무자 중 아르한겔스크, 연해주, 노보드빈스크에서 거주하는 직원의 이동을 제한함

그림. 세베로드빈스크 내 군함 건조



자료: <https://www.bbc.com/russian/features-52893117>

■ 크라브첸코 전 러시아 해군사령관은 도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산 사태로 새로 건조된 군함 출항 시기가 조정될 것이라고 발표함

-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 정도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상의 스케줄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임

■ 이고르 스크벤코 세베로드빈스크 시장은 '세브마쉬'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절반은 출근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총 29,600명의 직원 중 14,496명이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총 직원의 50%도 되지 않는 비율이며, 4월부터는 약 1,60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추가 설명하면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정보에 반박함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s.vostrikova1608@gmail.com/051-797-4776)

참고자료

- a) <http://www.morvesti.ru/news/1679/84010/>(검색일: 2020년 6월 19일)
- b) <https://www.bbc.com/russian/features-52893117>(검색일: 2020년 6월 24일)

600톤의 우라늄, 독일 떠나 러시아 우랄산맥으로 향해

■ 600톤의 우라늄이 독일의 핵연료 공장에서 러시아 우랄산맥에서 3,400km 떨어진 노보우랄스크의 공장으로 옮겨짐^{a)}

- 러시아 환경보호단체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600톤의 우라늄이 독일의 공장을 떠나 암스테르담 항구를 통해 러시아로 운송 중에 있다고 밝힘. 최종 목적지는 우랄산맥에서 3,400km 떨어진 노보우랄스크에 위치한 우랄 전기화학 콤파나트(Ural Electrochemical Combine)로 이 그룹은 올해 약 3,000톤의 우라늄을 독일에서 러시아로 선적했다고 밝혔음
- 한편 독일의 우렌코(Urenco)는 우라늄 농축회사로 일본, 중국, 러시아가 우렌코 인수를 통해 원전 가동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치열한 수주전을 펼친 바 있음
- 우렌코는 우라늄 운송은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관행으로 원자력 취급, 저장, 보호 및 처리를 포함한 모든 프로세스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적합하며 환경기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방사성 폐기물을 러시아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세부 사항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러시아에서 운송된 우라늄을 다른 물질들과 결합해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적합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힘

■ 러시아 환경 보호단체는 러시아가 방사성 폐기물 덤프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a)}

- 그린피스에 지난해 우렌코가 열화 우라늄을 10년만에 독일에서 러시아로 운송하는 것을 재개했다고 독일 언론에 항의하였음. 러시아는 2009년 환경 운동가들의 압박으로 이러한 관행을 중단한 바 있음
- 우렌코는 러시아 국영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Rosatom)의 자회사인 트레이드윌(Tradewill)과 최근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계약에 따르면 우라늄의 정련과정에서 나온 정련잔류물(tail)의 추가 공정을 위해 러시아로 이동되며, 농축 우라늄 제품은 다시 독일 우렌코로 돌아오는 반면, 정련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대부분이 러시아에 남게 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정련잔류물은 이전 단계의 농축공정에 남은 물질로 자연상태의 우라늄-235(Uranium-235) 존재비보다 낮지만 재농축할 경우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질임. 로사톰은 이 정련잔류물이 귀중한 원자재라고 주장하지만, 수입에 대한 동기는 불분명함

- 환경 전문가들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오염의 심각성을 주장하며, 러시아 푸틴대통령과 독일 메르켈 총리에게 우라늄 선적을 중단하라는 탄원서를 보냈음. 이 탄원서에는 러시아, 독일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환경 단체와 운동가들이 참여하였음
- 청원의 주요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을 유럽에서 러시아의 시베리아 및 우랄 지역으로 옮기는 폐기물 식민지 정책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독일은 자체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난하였음

그림. 독일 우렌코의 우라늄 농축 시설



자료: <https://law-in-action.com/2019/11/14/why-russia-loves-germanys-toxic-waste/>

이슬기,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sglee84@kmi.re.kr/051-797-4768)

참고자료

a)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3156266>(검색일: 2020년 6월 24일)



중·몽·러 경제회랑과 신북방정책의 연계방안

이창주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

1. 중·몽·러 경제회랑 개념과 범위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과 10월 각각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발표하면서 ‘일대일로’의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이후 2014년 9월 11일에, 시진핑 주석은 당시 중·몽·러 3국 정상회담에 참여했는데, 그 자리에서 중국은 실크로드경제벨트 공동건설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TSR, 몽골의 ‘초원의 길’과 연계하자고 제안했다.^{a)} 2015년 3월에는 중국 국무원 비준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위한 행동과 비전」이라는 공식 문서를 발표하면서 ‘일대일로’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중·몽·러 경제회랑’이라는 개념이 포함되면서 주목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중·몽·러 경제회랑’의 의미는 무엇일까? 중국-몽골-러시아를 통과하는 몽골종단철도(TMGR)를 이용한 물류 활성화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중·몽·러 경제회랑은 ‘선(線)’의 개념이 아니라 ‘면(面)’의 개념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여기에서 ‘면(面)’이란, 다양한 선이 연결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중·몽·러’경제회랑에는 2개의 주요 통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나는 중국의 수도권인 징진지 지역에서 후허하오터를 경유해 몽골과 러시아 연결 구간, TMGR 라인, 다른 하나는 중국 동북지역 내 다롄, 선양, 창춘, 하얼빈, 만저우리를 경유해 러시아 치타, TSR로 연결되는 TMR 라인이다.^{b)} 여기에, 중국의 동북지역 연구자들은 중국의 아얼산과 몽골의 초발산을 연결하는 루트가 창지투(창춘-지린-두만강 하류지역) 선도구와 연결되어 중·몽·러 경제회랑의 또 다른 루트라 주장하며 3개의 주요 통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상의 2개 혹은 3개의 라인을 간선으로 삼아 중국과 중국의 북방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라인으로 ‘중·몽·러’경제회랑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볼 점은 ‘중·몽·러’ 경제회랑이 반드시 중국~몽골~러시아를 모두 거쳐야 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중·몽·러, 중러, 중몽 등 3자 혹은 양자의 연계를 모두 포함하는 네트워크 형태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로써 징진지, 네이멍구, 동북3성을 전진기지 삼아 중·몽·러 경제회랑을 연계하고 있다.

이런 중·몽·러 경제회랑은 기존의 노선을 활용하는데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일종의 경제권 연계 나아가 통합의 개념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중국은 ‘6개의 경제회랑, 6개의 길, 다양한 국가와 항만(六廊六路多国多港)’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일대일로 추진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 6개의 회랑은 신유라시아대륙교, 중·몽·러, 중국-중앙아-서아시아, 중국-동남아, 중국-파키스탄, 중국-방글라데시-미얀마-인도 경제회랑을 의미하고, 6개의 길은 철로, 도로, 수로, 항로(항공), 관로(파이프), 고속인터넷로 등의 6개

a) <http://cafi.ec.mofcom.gov.cn/article/tongjiipeixun/201812/20181202818239.shtml>

b) 상동.

인프라로 엮으며, 많은 국가와 항만을 연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추진 방향은 2015년 7월 9일 중·몽·러 3국간의 MOU 체결, 이후 2016년 6월 23일에 3국이 발표한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기획 강요(建设中蒙俄经济走廊规划纲要)」에도 명시되었다. 본 「강요」에서는 특히 중·몽·러 3자가 도로, 철로, 항공, 항만, 통상구 등의 원활한 연계를 강조했고, 이러한 인프라 연계를 토대로 산업연계, 인적교류 활성화의 목표를 명시했다.^{c)}

2.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방향

상기한대로, 중·몽·러 경제회랑은 결국 중국의 징진지, 네이멍구, 동북3성, 몽골, 러시아 극동 지역 등 기존의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지역과 비슷한 범위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몽골이 내륙형 국가라는 점, 중국은 에너지 및 광물자원 최대소비국이자 3국 중 제조업 분야 강국이라는 점, 러시아 극동지역은 몽골과 자원 분야에 있어 경쟁구도이지만 몽골과 동북3성이 단거리로 동해로 진출하기 위한 해안라인을 갖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협이 활성화되더라도, 굳이 몽골을 경유하는 TMGR 철도라인을 활용할 필요 없이 TMSR 라인을 활용하거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경우에도 몽골을 경유하지 않고 사할린 필드에서 하바롭스크, 블라고베렌스크를 경유해 중국 헤이룽장성 헤이허로 연결되는 중-러 파이프라인을 활용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중·몽·러 경제회랑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중-러 협력만으로도 충분히 중-러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으로 시베리아와 북극연해까지 중러 경협이 확장되면서 전환점이 발생했다.

바로, 러시아-몽골-중국을 통과하는 ‘시베리아의 힘-2’ 개발 계획의 발표이다.

2014년 3월,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자국 영토로 포함시켰고, 이에 동년 8월 1일 미국·EU는 대러 경제제재를 실시했다. 이를 기점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단계에 접어들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북극해 연안의 개발, 천연가스를 포함한 자원 수출 등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중국은 에너지 자원 수급 문제, 일대일로를 통한 자국 국유기업의 해외진출 판로 개척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전략적 수요가 상호 부합했던 것이다.

중러 양국은 일대일로 분야 협력 대화를 통해 북극항로를 “빙상 실크로드”로서 개발하기로 합의했고, 2018년 1월 27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중국 북극정책백서」를 발표하면서, 공식 문서상에 처음으로 “빙상실크로드”를 명시하기도 했다. 중국은 러시아가 구미 국가들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공백을 침투했는데,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야말 LNG’ 사업과 ‘ARCTIC LNG-2’ 프로젝트이다. ‘야말 LNG’ 내 중국 측 지분은 29.9%(29.9%=CNPC 20%+실크로드기금 9.9%), ‘ARCTIC LNG-2’ 내 중국 측 지분은 20%(20%=Petro China 10%+CNOOC10%)로 참여하고 있다.^{d)}

중국은 북극연안의 LNG 사업에 참여함과 동시에 이를 수송할 북극항로 개척을 추진하며 유라시아 내 일대일로 루트를 인도양, 유라시아 육로, 북극해까지 끌어올렸으며,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시베리아·극동지역 개발 및 에너지자원 수출 판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러시아를 축으로 삼는 유럽~중앙아~동아시아를 연계하는 하트랜드 연계의 그랜드플랜을 디자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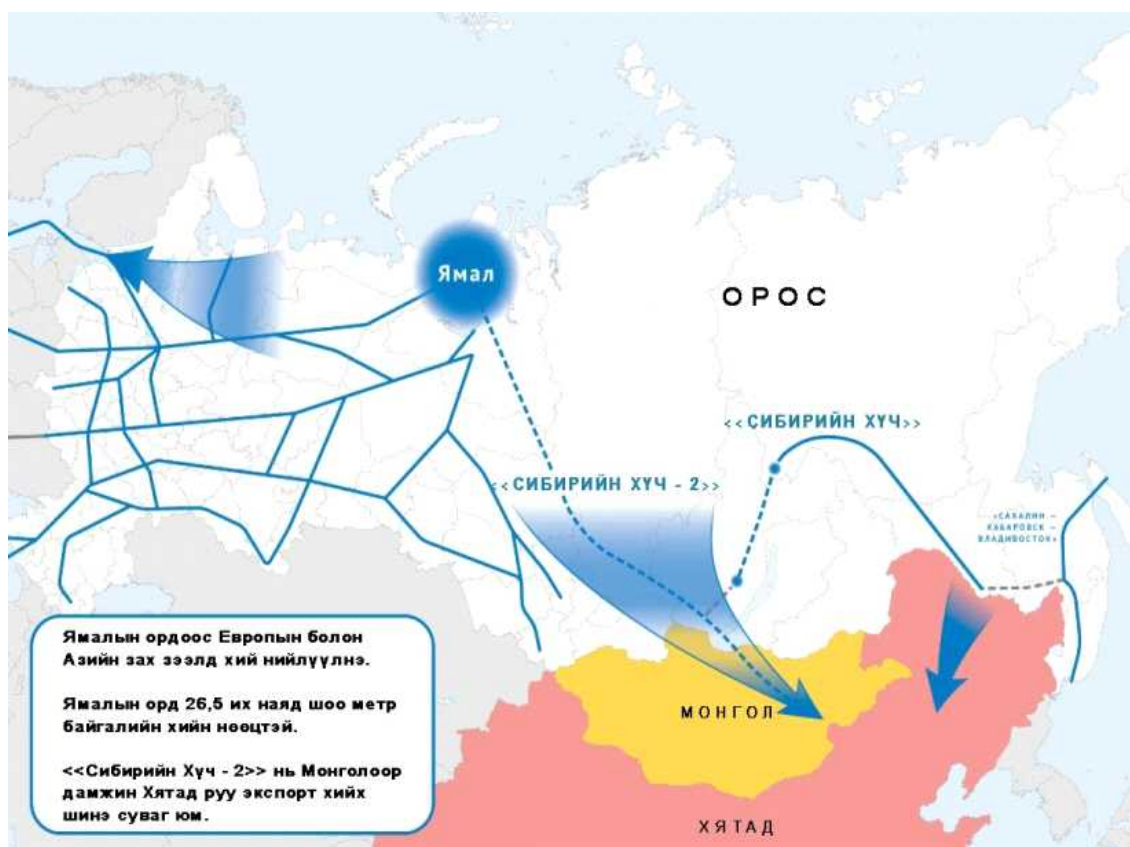
c) <http://world.people.com.cn/n1/2017/0309/c411452-29134333.html>

d)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IAL), “특집: 2017년 중국의 북극항로 진출 동향 및 시사점”, 북극물류동향, 2017년 9월, 제1쪽.

이런 중러 간의 경제협력 구조 속에서 중·몽·러 경제협력은 몽골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중러에게는 경제적 효용성이 낮은 사업에 속했다. 그러나 2가지의 자연적 한계가 몽골에게는 기회로 작용했다. 하나는 야말반도-벨링해협-중국 해운노선이 하계에만 운영 가능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러시아 시베리아-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으로 연결되는 서부노선이 지리적 요인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 야말반도 사베트항을 통한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해운 운송은 계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러시아는 야말반도에서 중국으로의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기존에 계획했던 ‘시베리아의 힘’ 프로젝트를 더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중러 서부노선 계획은 유보하되 ‘시베리아의 힘-2’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러시아-몽골-중국으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그림 1> 야말반도를 축으로 진행될 ‘시베리아의 힘-2’ 건설 방향 개념도



Source: gazprom.ru

알렉세이 밀레르 가스프롬 전무는 시베리아-블라고베센스크-중국 헤이하-동북지역을 통과하는 ‘시베리아의 힘-1’ 프로젝트와 함께 러시아-몽골-중국 통과하는 ‘시베리아의 힘-2’ 프로젝트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구체적인 내용은 야말반도에서 연간 500억m³의 천연가스를 중·몽·러 라인을 통해 운송할 계획으로 관련 건설작업은 5~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몽골은 특히 엔그투신 부총리가 ‘시베리아의 힘-2’ 파이프 건설 업무위원회 의장을 맡기로 올해 3월 31일 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본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야말반도를 중심으로 러시아를 에너지자원 공급의 허브이자 유라시아 하트랜드의 통과국으로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중국은 이런 러시아와 함께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건설 시장 내 중국 기업의 진출을 포함한 전략적 수요 충족, 몽골은 중러의 경험 속에서 통과국으로서의 경제적 혜택을 얻는 3자 간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e)} 중·몽·러 간의 파이프라인 건설은 결국 3국 간의 도로, 철로, 항공, 항만, 통상구 등의 원활한 연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3. 중·몽·러 경제회랑과 신북방정책의 연계방안

한국은 현 정부에 들어서 신북방정책을 제시한 바 있고, 이에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등을 범위로 관련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신북방정책은 중국 내에서는 동북3성과의 연계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몽·러 경제회랑의 건설이 상기한 바와 같이 중·몽·러, 중러, 중몽 간의 삼자 혹은 양자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신북방정책의 추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몽·러 경제회랑은 중국과 러시아 극동의 주요 항만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감안했을 때, 본 회랑은 한국과 일본과의 연계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해봤을 때, 다롄을 포함한 랴오닝성 연해 항만, 톈진을 중심으로 한 보하이만 항만,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연해주 항만 등과 한국의 주요 항만 간의 배후지를 포함한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징진지, 동북3성, 네이멍구, 러시아의 극동지역, 몽골 전 지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바라보고, 이 네트워크를 축으로 형성되는 환황해, 환동해 경제권을 포함한 해양경제권과 TSR, TMGR, TMR, TCR을 포함한 대륙경제권을 한반도로 연결하는 연계성 계획으로서 신북방정책의 컨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은 기존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9-Bridge 정책을 중·몽·러 모든 국가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로 확장시키면서, 중·몽·러 국제회랑의 핵심 사업인 ‘에너지’, ‘광물’, ‘철로 중심의 물류 사업과 관련 항만 연계 사업’ 등의 기존 협력 분야뿐만 아니라, 새롭게 주목 받는 국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포함한 디지털 실�크로드, 의료 및 방역 분야의 헬스 실�크로드, 콜드체인을 포함한 고부가가치의 물류 사업 등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한 정책 및 금융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e) <https://ikon.mn/n/1vy7>



주요 통계



표. 2020년 3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지역	11.75 (+1.9%)	6.9 (+2.6%)	18.65	+2.2%
북극해	2.41 (-9.8%)	6.04(-2.6%)	8.45	-4.7%
발트해	9.34(-1.1%)	12.78 (+7.0%)	22.12	+3.6%
아조프-흑해	9.48 (+4.0%)	15.25 (+3.1%)	24.73	+3.4%
카스피해	0.34 (+38.3%)	0.41 (+26.8%)	0.75	+31.6%
합계	11.75 (+1.9%)	6.9 (+2.6%)	18.65	+2.2%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참고자료

a) http://www.morvesti.ru/news/1679/82659/?sphrase_id=2939703(검색일: 2020년 6월 10일)

표. 2020년 3월 러시아 극동 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2,053,514.1	507,680.7	2,052,912.6	506,529.5	601.6	1,151.2
광물 제품	416,376.0	72,046.0	416,182.7	72,010.7	193.3	35.3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309,134.8	17,476.6	1,309,134.8	17,476.6	0.0	-
생고무 및 화학 제품	1,247,769.2	16,360.7	1,247,769.2	16,360.7	0.0	0.0
가죽원료, 모피 제품	4,355.8	55,374.8	4,338.0	55,374.3	17.8	0.4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20.6	853.5	20.6	853.5	0.0	0.0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78,582.8	7,077.3	78,467.0	7,032.7	115.7	44.6
금속 및 금속 제품	1,366.5	18,130.0	1,366.5	18,130.0	0.0	0.0
기계류	15,563.0	43,335.9	15,562.8	43,065.3	0.1	270.6
기타	16,190.3	267,986.3	15,919.2	267,214.9	271.1	771.3
합계	211,924.4	25,400.4	211,920.9	25,371.4	3.5	29.0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folder/230467/document/233675>(검색일: 2020년 6월 10일)

표. 2020년 3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단위: 천 톤, 달러)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냉동어	1	7.1	-	-	1	7.1	-	-	-	-	-	-
연어류	178,025	257,187	466	716	177,983	257,061	466	716	42	126	-	-
넙치	9,971	20,198	-	-	9,929	20,072	-	-	42	126	-	-
가자미	41	177	-	-	41	177	-	-	-	-	-	-
가자미류	2,358	2,340	-	-	2,358	2,340	-	-	-	-	-	-
청어	4,309	4,663	-	-	4,309	4,663	-	-	-	-	-	-
대구	1,771	1,345	-	-	1,771	1,345	-	-	-	-	-	-
명태	8,683	23,897	-	-	8,683	23,897	-	-	-	-	-	-
농어	136,661	170,288	-	-	136,661	170,288	-	-	-	-	-	-
간, 곤이 (어란)	16	115	-	-	16	115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6,662	23,383	-	-	6,662	23,383	-	-	-	-	-	-
생선 필렛, 어육	446	700	-	-	446	700	-	-	-	-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10,545	31,095	48	197	10,545	31,095	48	197	-	-	-	-
갑각류	4	83.5	148	924	4	83.5	148	924	-	-	-	-

계류	3,087	53,562	42	246.6	3,087	53,562	42	246.6	-	-	-	-
조개류	2,034	45,661	-	-	2,034	45,661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821	1,808	-	-	821	1,808	-	-	-	-	-	-
수산 무척추 동물	629	1,024	-	-	629	1,024	-	-	-	-	-	-
성게류	138	402	69	254	138	402	69	254	-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

참고자료

a) <http://dvtu.customs.ru/folder/230467/document/230469>(검색일: 2020년 6월 10일)